

광주 금남로 한마당

2008 빛고을연등축제 일정 발표

행사명	일시	시간	장소
3보1배	4월25일(금)	오후 6시	금남로
점등식 1	4월25일(금)	오후 7시	문화전당앞
점등식 2	4월28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광역시청
어울림마당	5월 5일(일)	오후 1시	광주공원
연등법회	5월 5일(일)	저녁 6시	광주공원
제등행진	5월 5일(일)	저녁 7시	분광주공원 출발
대동한마당	5월 5일(일)	저녁 8시 20분	문화전당앞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와 광주·전남 불교위원회(회장 성오)는 4월 7일, 2008 빛고을 연등축제 일정을 발표했다.

빛고을 연등축제는 4월 25일 금남로에서 3보1배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전당 앞 점등식, 28일 광주 시청 앞 점등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진은 5월 5일 저녁 7시 광주공원에서 출발해 금남로를 거쳐 문화전당 앞에서 대동한마당으로 회향한다.

3보1배 정진은 2013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티베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해 열린다. 문화전당 앞에서 열리는 점등식은 풍등 날리기를 비롯해 불꽃쇼와 탐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자랑이다.

5월 5일 대동한마당 행사는 전통등과 장엄물의 제등행렬 도착과 함께 시작된다. 불축 무용과 노래, 인기 가수 공연과 청소년 댄스팀 공연 등이 펼쳐지며 불꽃과 레이저쇼가 밤하늘을 장엄한 가운데 강강수월래로 마무리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상주사 개금불사 점안식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는 4월 8일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식 및 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점안식 증명법사로는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이 참석했고, 무상 스님(법주사 부주지), 도안 스님, 법담 스님(은적사), 우성 스님(불주사), 법희 스님(흥천사), 김홍재 전북도의원, 안근 군산불교 신도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의 웃음 법이라 하여 변하지 않지만 부처님 웃음 바뀔수 없는 개금 불사들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도연 스님은 "상주사를 수행과 기도와 전법의 도량으로 가꿔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빠른 대처가 천불천탑 살렸다”

4월 6일 화순 운주사 산불로 점검한 방재대책



운주사 외벽, 불씨가 외벽 바로 앞까지 와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4월 6일 오후 2시경,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찰 방재대책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강한 바람에 불길은 사찰 안까지 번졌지만 운주사 대종의 빠른 대처 덕에 보물 제796호 9층 석탑, 보물 제797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 등 문화재 피해 없이 아산 5ha만을 태웠다. 운주사 대종들은 산불에서 어떻게 천불천탑을 살렸을까? 운주사 문체희 중무실장에게 당시 상황을 들었다.

산불 발생 20여분이 채 못돼 불길은 연기와 함께 운주사 입구 쪽 화장실 인근까지 번졌다. 산불 인지와 동시에 운주사 대종과 신도 등 누구 할 것 없이 119에 화재 신고했다. 정행 스님으로부터 유선으로 방재 지시가 내려왔다. 우선 폭발위험이 있는 공양간과 다실의 가스 밸브를 잠그고, 가스통을 분리해 사찰 전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뒷밭에 이동시키라는 것. 정행 스님도 나서 가스통을 옮겼다. 그리고 대종은 정행 스님의 지시에 따라 사찰에 설치된 옥외 소화전 6개를 작동해 대웅전 인근 아산에 물을 뿌렸다. 처음에는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보려 했다. 하지만 바람이 워낙 강해 역부족이었다. 대웅전 등 전각을 지켜야 한다는 정행 스님의 지시에 모두 대웅전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장전, 산신각, 종무소, 다실, 객실 순으로 물뿌리기를 진행했다. 운주사 대종의 물뿌리기로 불씨는 대웅전 등 전각에 근접하지 못하고 인근 아산만 뿔뿔했다.

운주사 대종이 가스통을 나르고 물 뿌리기 시작한지 30여분쯤 뒤 방화수로 준비된 20여분이 거의 소진될 무렵 소방대원, 산불진화대원이 헬기 7대, 소방차 18대 등을 몰고 순차적으로 도착해 본격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운주사 대종의 빠른 대처가 천불천탑을 살렸다고 말한다. 문 실장은 “평소 먼지가 날릴 때마다 물을 뿌렸던 경험이 화재 시 소화전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운주사에서는 1년에 2회씩 방재훈련을 실시해 대종들의 방재시설 조작이 능숙한 것이 위기상황 시 큰 도움이 됐다. 화순군의 공공근로 숲가꾸기도 한몫

했다. 당시 산불을 목격한 사람들은 “불씨가 강한 바람에 사찰 건물로 옮겨 불을 태웠지만 이상하게도 불씨는 사찰을 비껴갔다”고 말했다. 정행 스님은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운주사 인근의 잡목과 담뿔 등 탈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한 탓에 불길이 다가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실장은 “대개 간벌한 잡목을 방치해 두는 데 지난 겨울 정행 스님의 지시로 운주사 대종들이 모두 산 아래로 치웠다”며 ‘공공근로 숲가꾸기’는 물론 간벌 후 주변을 정리하는 후속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라 도선 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운주사, 주지 정행 스님과 대종들의 침착한 대응이 없었다면 제2의 낙산사, 승래문이 될 뻔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아시아인 하나된 문화나눔 잔치 열려

4월 5일 아시아예술인한마당 개최

아시아 예술인들이 광주에 모여 나눔의 잔치를 열었다. 4월 5일 광주 인도박물관에서 인도 질시 예술인 바울림과 인도영화음악 불리우드 맨스 그리고 전통타악기 연주팀이 모여 교류행사를 열었다.



현장스님(사진)은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의 교류를 통한 소통은 아시아인족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 팔만 뻗으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은 25~26일 양일간 인도 예술단, 네팔, 필리핀 예술가들이 모여 ‘아시아 문화주간’ 행사를 열고 아시아 각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환경연대 창립

광주전남지역 불교환경운동을 견인할 광주불교환경연대가 4월 19일 광주 무각사에서 창립된다.

그동안 서울, 경기, 강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불교환경연대가 광주전남 지역에 뿌리 내리게 되는 이번 광주불교환경연대 창립은 서울 불교환경연대의 지부 형태로 개설돼 전국단위의 불교환경 조직으로써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광주불교환경연대 준비위원장을 맡은 법일 스님(안도 신홍사 주지)은 “대운하 저지에 힘을 쏟는 것은 물론, 교육 및 실천을 통한 다양한 불교환경 사업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062) 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익산 대원회

“봉사 필요한 곳 어디든 가요”

“몸은 힘들어도, 봉사 후 돌아서는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전북 익산에는 자원봉사라면 무엇 이든지 발 벗고 나서기로 유명한 봉사모임이 있다. 대원회라는 봉사모임이 그것. 대원회는 15명 작은 인원으로 전북불교회관 내 무료급식소 봉사를 시작해 탄생한지 5년여된 단체다. 설립 즈음인 2003년 5월부터 바로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정식 등록해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열심히 봉사하는 불자 봉사단으로, 초대 백상래 회장, 2대 이순욱 회장, 3대 최영순 회장, 4대 김덕순 회장 5대 문여주 회장(사진)으로 이어지는 동안 어느덧 회원수 71명의 탄탄한 불교봉사단체로 자리 잡았다.

매월 회원 1인이

회원들의 열정과 자부심은 대단하다. 대원회의 활발한 활동은 회원들의 수상 경력으로도 증명된다. 문여주(선덕화) 회장 때인 2005년에는 익산시 자원봉사 한마당대회에서 도시상을 수상했다. 현재 총무를 맡고 있는 박옥숙(반야심) 보살은 자원봉사 공로를 인정 받아 익산시장상을 수상했다. 4대 회장을 역임한 김덕순 보살은 자원봉사 수기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익산시 자원봉사 박람회에서는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원회는 2003년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고등학생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회장이던 김덕순보살은 “회원들과 함께 직접 뛰자는

15명으로 시작 71명 탄탄한 봉사단체 자원봉사 공로 인정받아 각종 수상해

5000원씩 내는 회비로 대원회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총 32가족에게 매월 반찬 3가지씩을 준비해 정성껏 전달한다. 전해지는 반찬은 김치를 비롯해 돼지불고기, 오징어 젓갈무침, 멸치조림 등으로 맛과 영양을 고려한 대원회의 정성이 듬뿍 담겨있다. 대원회는 군산 교도소, 군부대 법당, 양로원 등도 수시로 방문해 필요한 물품 및 간식을 전한다.

대원회 회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나서기를 꺼린다는 것. 연신 “잘한 것도 없는데...” “봉사한지 오래 되지도 않았다”며 손사래를 친다. 이와는 반대로 봉사활동에 대한

물론 각 사찰 법회 때마다 불자들에게 참기름, 양말, 차, 쿨 등을 팔아 백혈병 성금을 마련했다. 팔수 기증자를 쉽게 만나 이식수술 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학생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원회가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지면서 많은 자원요청이 들어오지만 어려운 재정행편에 일일이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문여주 회장은 후원자들의 후원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종교를 초월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아낌없는 대원회 회원들의 봉사는 관세음보살이 현한 모습 그대로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 전북지사: (063)910-5199

우리는 하나·세계도 하나·마음과 뜻도 하나

회암사지 복원을 통한 선인들의 뜻을 기려 내고장 맑고, 향기롭게

제4회 경기북부 사암 음악 예술제

일시 불기2552(2008)년 4월 25일(금)
장소 양주시 지장사 반야보탑 특설무대

오후 6시 30분[불축 법요식]
오후 7시 30분[음악 예술제]

주최 |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주관 | 양주시사암연합회 · Yangju 양주시 · 사)삼보불교음악협회

주연 | Laurel 로렐심포니오케스트라

협찬 | 고양시사암연합회 / 남양주시·구리시사암연합회 / 동두천시사암연합회 / 의정부시사암연합회 / 파주시사암연합회 / 포천시사암연합회 / 가평군사암연합회 / 양평군사암연합회 / 연천군사암연합회

후원 | 경기문화재단 / Yangju 양주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한국불교고대교종 / 대한불교천태종 / 대한불교관음종 / 불교총지중 / 대한불교보문종 / 대한불교영산법화종 / 전국비구니회 / 천수천안불교지원봉사단 / 회천의용소방대 / BBS 불교방송 / 불교TV / 불교신문 / 법보신문 / 붓다뉴스

행사 프로그램

제1부 불축법요식 오후 6시 30분
법어 지관 큰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제2부 음악예술제 오후 7시 30분

제1막 제1장
사곡, 사물놀이 한마당

제1막 제2장
지공선사와 김홍의 가족과의 인연과 이별

제2막 제1장
나눔의 불교에 귀의 / 나눔스님의 도력 / 나눔스님의 효심 / 무학대사의와 만남

제2막 제2장
무학대사의 탄생과 開宗자의 입하 / 도선국사의와 만남과 도유지 선정 일화 / 수창공의 대화(무학대사의와 이상계)

제3부 개회기 이양식 및 행운권 추첨

개회기 이양식
봉행위원장 → 양주시사암연합회장 → 양주시장 → 동두천시장 → 동두천시사암연합회장

행운권 추첨
1등 ▶ 자동차(미티즈) 2등 ▶ 냉장고(지퍼) 3등 ▶ 김치냉장고(일제) 4등 ▶ LCD-TV(X캔버스) 이 밖에 많은 경품을 준비 했습니다.

공연문의 | 경기북부불교사암연합회 031 863-1888